*영어어문교육 16*권 4호 2010년 겨울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한 분석적 비평: 화용론과 기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 노 신
(호서대학교)

Lee, Noh-shin. (2010). A critical analysis of M.M. Bakhtin's Dialogics: A pragmatic and semiotic approac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4), 223-238.

This article analyzes and discusses M.M. Bakhtin's dialogics with the perspectives of what it emphasizes and how it makes the Russian Formalism and the Marxist literary theory together in his dialogics. This article considers conversion in the literary texts the central idea of dialogics, and it takes place through satire and parody. As Bakhtin stresses in his works,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novel as the dominant genre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Such satire and parody shows the ambivalence of the Russian Formalism and the Marxist literary theory. Bakhtin states that novel per se is very conversing. It has turned over the position that has been occupied by epics (poetry) and play for thousands years, and taken it over in the nineteenth century. Thus, novel is a literary genre in which a variety of conversing struggles occur throughout the texts,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epics and play. Throughout such analyses and discussions, this paper considers Bakhtin's dialogics a complex of semantic, pragmatic, and semiotic elements.

[M.M. Bakhtin / dialogics, novel / conversion, satire / parody / epics / play / 미하일 바흐친 / 대화이론 / 소설 / 전복 / 풍자 / 패러디 / 서사 / 희곡]

I. 서론

러시아의 세계적 사상가이자 언어학자이며 문학비평가인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바흐친이 사망한 직후인 1975년경에 소련의 대학생들에 의해, 출판되지 않은 원고가 몰도바 공화국 사란스크의 한 사범대학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여러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심도 있게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호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2007-20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연구되어 왔다(Clark & Holquist, 1984).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대화이론은 좌파 맑시즘의 사상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우파 자유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학자들 모두에게 상당히 열광적이며 매력적인 주제로 인용되며 연구 되어 왔다는 점이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과 같은 대표적 좌파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는 바흐친의 대화이론을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한 분류로 보았고(1982), 카테리나 클락(Katerina Clark)이나 마이클 홀퀴스트(Michael Holquist)와 같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상가들은 동일한 대화이론을 그 이론이 스탈린 시대라는 완성된 사회 역사적 배경 및 시기를 고려 할 때 자유주의적 성향에 가깝다고 보았다(1983).

이와 같이 바흐친의 대화이론이 양 진영에서 활발하게 쓰여지고 연구되는 이유로는 그의 대화이론의 핵심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언어학을 통섭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의미론과 화용론 및 기호학적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바흐친은 그의 대화이론을 정립하면서 마부르그 학파(the Marburg School)에서 유래된 신칸트주의(Neo-Kantianism)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와 더불어 러시아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학적 비판이론을 혼합하였다(Holquist, 1990). 사실 바흐친은 언어학자이자 언어철학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형인 니콜라이 바흐친(Nikolai Bakhtin)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는데, 니콜라이 바흐친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절친한 친구[1]로서 나중에 영국 버밍햄 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에 세계 최초의 언어학과를 신설하여 최초의 언어학 교수가 되었을 정도로 현대 언어학의 학문적 독립 및 창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사실 현대 언어학의 태두인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이 나오기 까지는 스위스의 소쉬르(Saussure)와 더불어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보리스 아이헨바움(Boris Ejxenbaum), 프라하 학파(Prague Linguistic School)를 대표하는 로만 제이콥슨(Roman Jacobson), 얀 무카로좁스키(Jan Mukařovský), 그리고 니콜라이 바흐친과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이원론(Dualism)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적 테두리 안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연구해 왔던 덕분이다. 통사론적 어구, 문장분석을 위해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에서 주장하는 표면구조와 심층구조 이론 또한 플라톤부터 시작하는 오래된 서구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전통 속에서 형성 된 것이며, 또한 상기 학자들의 두터운 언어학과 언어철학 연구결과로부터 통사론에 대한 촘스키적 관점으로 재 생성되어 나온 것이지 촘스키 단독으로 역사와 시대 그리고 학문적

[1] 1930년대에 니콜라이 바흐친과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러한 교제는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연구에 폭넓은 영향을 주어 그의 언어철학적 사유가 담긴 『철학적 탐색, Philosophical Investigations』를 완성하도록 크게 고무시켰다(Frank, 199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통을 뛰어넘어 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하루아침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Bialostosky. 1989; Holquist, 1989; Thomson, 1990; Hirschkop, 1990).

촘스키가 통사론적 언어학에 연구중심을 두었다면,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의미론적 성격이 강하며(Bialostosky, 1989),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상대가 변함에 따라서 동일한 어구의 의미도 가변적으로 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화용론과 기호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화이론은 화자들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대화들 속에 형성되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를 전복(Conversion)이라는 관점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Bakhtin, 1981). 즉 대화라는 것은 언제나 일방적인 역학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화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상호교환 속에서 권력에 대한 계속적인 전복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권력은 단지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화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 또는 계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적 권력은 사회적 약자에 의해서도 전복되어 그에게 이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복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이론의 핵심사상은 테리 이글턴 또는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같은 맑시스트 비평가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언어적 권력의 전복에 중점을 두었으며(Easthope, 1991), 카타리나 클락이나 마이클 홀퀴스트와 같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비평가들은 독재권력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일반시민들에 의한 언어적 권력의 전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흐친은 이러한 언어적 권력의 갈등과 전복 현상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서 문학텍스트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소설이야말로 시, 드라마, 에세이와 같은 다른 문학장르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텍스트 속에 끊임없이 언어적 권력의 갈등과 전복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화용론적이며 기호학적 의미를 보여준다(Bakhtin, 1981).

그러므로 본 논문은 바흐친의 대화이론을 화용론적이며 이와 동시에 기호학적 차원에서 접근분석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시, 드라마, 소설과 같은 여러 장르의 텍스트들을 인용하여, 대화이론의 특성인 언어적 갈등과 전복이 어떻게 문학 텍스트 속에서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러시아 형식주의 vs. 마르크스주의 : '어떻게'와 '왜'의 접근적 방법 문제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의미론적이면서도 그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동시에 화용론적이고 기호학적인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화이론은 구조주의적이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이며 또한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파생한 기호학의 요소들을 전부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화주의가 이러한 다양한 공통분모적인 모습을 띠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러시아 형식주의의의 철학적 배경 및 특징들을 분석해 보며, 그 다음으로는 당대에 러시아 형식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비평적 투쟁을 벌였던 마르크스주의적 문학/문화비평이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문학/문화비평을 서로 비교 대조해 보며, 그렇다면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과연 양자로부터 어떠한 특징들을 포용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대 중요 언어학 연구와 문학비평은 원래 러시아 형식주의(Russian Formalism)를 기점으로 하여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기본적으로 칸트주의적 순수이성비판을 사상적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Zima, 1981, p. 105), 따라서 텍스트는 인간의 경험과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사회학적 현상들을 담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예술적 언어학적 존재가치가 있으며 이는 순수이성의 영역 내에서 관장된다. 따라서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학적 상징적 의미들과는 별개로 언어는 예술로서 합목적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 하였다(Bennet, 1979).

이러한 러시아 형식주의의 태동의 중심에는 1915년 모스크바 대학에 대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로만 제이콥슨(Roman Jacobson)이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형식주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스크바 언어학회를 조직하였고, 이어 페트로그라드에서도 1916년 쉬콜로프스키(Shklovsky)가 중심이 되어 아이헨바움, 토마셰프스키(Tomashevsky), 티냐노프(Tynyanov) 등과 함께 오포야스(Opoyaz, 시어연구회)를 조직함으로써 이처럼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의 두 조직에 의해서 러시아 형식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Erlich, 1989). 로만 제이콥슨은 조국인 소련에서 형식 그 자체보다는 문학 텍스트의 사회학적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과 대립을 벌이다가 1930년대 체코로 망명하여 체코 프라하 학파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체코 조차도 소련의 위성국으로 변하자 미국으로 망명하여, 러시아 형식주의를 서방에 소개하였는데, 이는 곧 미국을 휩쓴 신비평 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촘스키의 현대 언어학과 다양한 문학 연구 및 비평의 커다란 한 축은 로만 제이콥슨의 미국 망명에 따른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Newyemer, 1988).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구조와 형식에서 비롯된 여러 주제들을 연구하는 레비 스트로스(Lévi-Strauss)의 구조주의(Structuralism)이론 또한 러시아 형식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1920년대부터 형식주의를 단지 문학 텍스트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협소화 시키지 않고, 인문사회학적 현상들을 연구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론체계로서 발전시켜 나갔다. 문화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형태와 구조를 중시하는 형식주의를 바탕으로 구조주의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구조주의를 극복하고자 그 이후로 나온 여러 탈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사조들 또한 이러한 러시아 형식주의와 이것에서 파생된 구조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Erlich, 1981).

사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텍스트 속에 내포된 사회학적 상징성을 묻고 분석하는 "왜" 라는 질문보다, 그 자체로서 합목적적이며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텍스트의 구조와 형식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치중하였다. 그들은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사이의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2]와 텍스트 조합의 자동화(Automation) 이론을 중심으로 시적 언어(poetic words)와 일상어(casual words)를 구분 지어 시적 언어야말로 순수 예술적 언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연구에 몰두 하였다(Todorov, 1981).

그들에게 있어서 기표와 기의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개열체이며, 그 중에서 기표는 기의 없이도 예술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술적 언어는 일반적으로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미지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미지와는 관계 없이 언어적 예술은 언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형태적 기능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러시아 형식주의는 러시아에서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전성기를 맞이 하였지만, 30년대에 들어서 당시 소련의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비정치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형식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그들 형식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비 형식주의자들이 그들이 너무 일상적이며 실용적이지 못하고 겉치레와 형식에만 치우친다고 비난하기 위해 반대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오종우, 2004).

1920년대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러시아 형식주의는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에게는 궁극적인 타도와 소멸의 대상이 되었다. 1928년도를 정점으로 러시아 형식주의는 러시아에서 자취를 감추든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와의 타협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각자의 의지와 주어진 여러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는데, 로만 제이콥슨의 경우는 체코로 망명하여 **프라하** 학파의 중심적 인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하바드 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

[2]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는 쉬콜로프스키가 주장한 것인데, 기의와 기표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의는 계속적인 미끄러짐에 의해서 기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기표만이 남게 된다는 데리다(Derrida)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신비평이론과 구조주의 및 탈구조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쉬콜로프스키나 아이헨바움, 티냐노프 등과 같이 페트로그라드의 오포야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학자들은 그들이 주장했던 형식주의에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론을 접목시켜 그들의 연구방법이 단순히 언어의 형태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비평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Erlich, 1989).

그러나 이것은 형식주의의 정체성을 스스로 흐리게 하는 시도였으며, 자기부정의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칸트가 그 자체가 합목적적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순수이성의 체계에 헤겔의 변증법적 경험론을 접목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이성의 합목적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굴곡 속에서 1930년대에 이르러 러시아 형식주의는 스스로의 이론적 한계성 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서는 결국 소멸되고 말았다. 당대 소비에트 사회에서 형식주의 타도의 선봉에 섰던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론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단지 정권의 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볼셰비키 혁명은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수 백 년 동안 짜르(Czar)가 통치했던 전제군주체제를 무너뜨렸다. 이는 대부분이 지주세력의 농노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러시아 일반민중들에게는 성서적 예언이 현실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당시 러시아 사회는 천년왕국의 도래라는 기쁨과 활기에 가득 차 있었으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유태-기독교의 한 종말론적 분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Frank, 1990). 따라서 이러한 볼셰비키 혁명 당원들 중에는 수많은 사제들과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일반 민중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이러한 새천년의 도래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만 하더라도 볼셰비키 지역 당대회 및 국가수준의 당대표자 회의에 사제복을 입고 참석한 당원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3](Clark & Holquist, 1984).

따라서 문학과 언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주장하던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론 또한 당대 지식층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형식주의와 같이 당대의 현실에 비참여적이며 비정치적인 이론에 대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특히 트로츠키(Trotsky), 루나차르스키 (Lunacharskij), 페레베르제프(Pereverzev)와 같은 학자들이 그러한 비판의 주축에 있었다 (Zima, 1981).

러시아 형식주의의 비정치성에서 오는 한계성은 형식주의자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경험과 사회참여라는 명목으로 언어 속에 내재된 세상의 모든 오점들을 전부 털어 버리고, 오직 언어의 순수성과 이를

[3] 볼셰비키 혁명에 수많은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이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짜르 통치체제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던 러시아 정교를 그 틀에서 해방시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에서였다(Frank, 199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바탕으로 한 순수문학성만을 진정한 예술적 가치로 여겼던 러시아 형식주의의 한계는 분명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한 부분이 있었다. 마르크스 비평 이론가들은 이러한 형식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성을 지적하며, 문학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기능을 중요시 하였으며, 또한 러시아 형식주의가 방법론적 형태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문학 텍스트(시어)의 형식을 분석해 낼 것인가에 치중 했다면, 마르크스 비평가들은 문학텍스트를 '왜' 분석해야 하는 지와 같은 문학의 역사적 사명과 역할성에 역점을 주면서 기존의 역사주의적 분석방법과 더불어 헤겔의 변증법적 예술이론을 적용하였다[4].

마르크스 비평가들에게 있어서 기표는 사상이라는 기의를 담는 하나의 기능적 도구에 불과 하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 그 자체에 있다거나 합목적적이라기 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또한 그 내용의 효과적이며 극적인 표출을 위해서 예술적 기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학과 예술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도구였다.

사실 마르크스주의 비평은 러시아 형식주의 못지않게 서구사회의 문학과 문화비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k Jameson)의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이라든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프랑스와 영국/미국의 여성주의(French Feminism, English Feminism), 데리다의 해체주의,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등과 같은 탈구조주의적 비평이론들 전부가 문학작품을 '왜' 분석해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둔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테리 이글턴과 같이 어떤 특정한 이론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마르크스주의적 비평이론을 자신의 문학비평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금세기를 대표하는 마르크스 비평주의자가 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196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 하였는데, 물질주의와 기계주의적 현상들이 갈수록 팽배해 지고 있었던 서구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들어갔다. 예술적 순수함만을 강조하는 순수문학의 비현실성을 꼬집으며, 문학의 사회참여적 기능을 강조 하고, 그러한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상징체계의 정치성과 사회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형식보다는 언어와 문학의 사회학적 기능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평이 더해지고 이에 대한 양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프라하 학파의 언어와 허구적 텍스트(문학)의 형식적 구조 및 사회학적 기능의 대립적 가치에 대한 양가적 인정은 이후 언어학에서는 통사론과

[4] 헤겔에 의하면 각각의 예술작품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특별한 표현 양식이다(Zima, 19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미론, 화용론 및 더 나아가서는 기호학으로 세분화 되고, 문학에서는 구조주의에서 탈구조주의로 이동해 가는 흐름 속에서 탈 구조주의의 세부적 범주들로서 문화이론(Cultural Theory),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 여성주의(Feminism), 독자반응이론(Reader response theory), 탈 식민주의(Post-Colonialism), 데리다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탈 구조주의적 사상들은 현대의 탈 근대주의(Postmodernism)의 사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비평하는 바탕적 사상의 역할[5]을 해 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현대 서구 문학비평과 언어학적 이론들의 대다수가 러시아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아예 그들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촘스키 언어학을 비롯하여 의미론, 화용론, 기호학과 같은 여러 언어학의 기반 또한 이러한 학문적 흐름 속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는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음의 장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소설 속의 풍자와 패러디: 카니발리즘(Carnivalism) 속에서의 언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흐친 대화이론의 핵심은 텍스트 상에서의 언어적 전복이다. 바흐친은 이러한 언어적 전복이 풍자와 패러디의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카니발(Carnival)과 같은 축제의 양상을 띤다고 하였다(Bakhtin, 1990). 카니발 축제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왕의 행차이다. 그런데 이 왕은 진짜 권력을 지닌 통치자가 아니라 카니발에서 가장 하층민이며 어리석은 자로 선출한다. 그를 따르는 신하 무리 또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출하며, 이렇게 뽑힌 왕과 신하들이 행차 할 때 평면들은

[5] 탈구조주의와 탈근대주의를 동일한 사조 또는 사상운동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착시적 현상이다. 탈근대주의는 사상 그 자체라기 보다는 탈구조주의적 사상에 대한 다양한 표현양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연하게도 이들 두 사조는 동일한 시대에 등장함으로써 사실상 사상적 가치 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는 탈구조주의가 탈근대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기에 가능하였으며, 탈근대주의의 물질화 및 상품화는 사실 프레드릭 제임슨이나 테리 이글턴과 같은 여러 탈구조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가혹한 비평을 받고 있다. 사실 현대 탈구조주의 속에서 모든 예술적, 사상적 가치와 전통은 시장(market) 속에서 구매력(marketability)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치기준으로 재평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필품처럼 상품화 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의 참상을 탈근대주의적 기법으로 묘사한 피카소의 게르니카 미술작품은 런던이나 뉴욕의 예술품 경매장에서 일본의 부동산 재벌에 의해 자산축적 및 증식의 수단으로 높은 가격에 구매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의 정교한 대량생산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작품을 대량 복제 함으로써 대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단 2-3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 할 수 있게 하거나 더 심지어는 10만원대의 고가의 복제품을 구매하면 거기에 부록으로 끼워주는 고객 사은품으로 판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결합한 탈근대주의는 예술적, 사상적 가치의 상품화를 보여줌으로써 탈 근대주의자들에게 호된 비평을 받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부 환호와 폭소를 지르며 맞이한다. 이러한 바보 왕의 행차는 전혀 근엄하거나 엄숙하지 않으며, 일반 평민들은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박수와 폭소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따라서 실제의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이로부터의 두려움의 이미지는 카니발에서는 바보왕의 탄생을 통하여 전복 된다.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순간을 즐거움 속에서 보낸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풍자이며 패러디 이다(Bakhtin, 1984).

바흐친은 소설을 가장 중요하고도 지배적인 장르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카니발에서와 같은 전복적 사건이 풍자와 패러디를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르가 소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적 전복은 카니발의 풍자와 패러디만큼이나 유쾌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작품 속에서 거꾸로 보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소설은 시와 희곡과 더불어 서구문학장르 중 3대 장르에 속한다. 그런데 바흐친은 소설이야말로 그러한 장르들 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게 형태와 내용 두 가지를 보여주는 장르라고 보았다. 소설은 내용 속에 당대의 다양한 사상과 학문 및 문화현상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김상구, 2001). 따라서 소설텍스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들의 대화들은 그 속에 끊임없이 화용론적이며 기호학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이것은 단순히 텍스트가 이미지를 통하여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차원이 아닌 그 텍스트가 쓰인 시대와 역사의 사회 문화적 전통을 복잡하게 반영한다는 의미이다(Ivanov, 1993). 그 중에서도 작가가 의도적으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풍조들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비틀어댐으로써 언어적 권력의 전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풍자와 패러디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풍자와 패러디는 바흐친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기법들의 사용이 소설작품들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Cunliffe, 1993).

이러한 풍자와 패러디는 소설텍스트 속의 기표로부터 원래의 기의를 한시적으로 분리시킨 후 기표에 새로운 기의를 접목시키는 작업이다. 이것은 마치 카니발에서 하층민 출신의 바보에게 왕의 옷을 입힌 것과 마찬가지이다. 카니발을 통하여 바보가 왕과 동의어가 되었을 때 원래 바보가 갖고 있던 기의는 왕의 기의를 전복시켜 두려움과 권력의 의미에서 조롱과 해학의 의미로 바뀌는 것이다(Easthope, 1993).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분리와 새로운 접목을 통한 해학의 생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일정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풍자와 패러디는 이와 같은 기표와 기의 간의 분리와 새로운 접목이라는 반복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매우 기호학적이며 또한 형식주의 적이다.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주장과도 같이 원래의 기의는 기표로부터 분리되어지며 풍자와 패러디라는 예술적 기법에 의해 새로운 기의가 기존의 기표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접목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순수 예술적 행위이며 그 자체로서 합목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순순 예술행위가 미학적 감동을 선사 한다면, 풍자와 패러디는 웃음의 미학과 해학의 감동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풍자와 패러디를 형식주의적이며 기호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 순수예술적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 비평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풍자와 패러디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풍자와 패러디의 대상에 대한 내용적 접근법에서 비롯된다. 형태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에게 있어서 풍자와 패러디의 대상은 무엇이며 또한 무슨 내용으로 접근하는 지를 놓고 바라볼 때, 유산계급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Possessors)이 주요 대상이 되며, 그들이 텍스트 속에서 풍자와 패러디를 통하여 전복 된다고 볼 때, 이는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Eagleton, 198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풍자와 패러디는 형식주의적이며 기호학적이고 이와 더불어 의미론적이고 화용론적이며 또한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풍자와 패러디는 기표와 기의의 전복이며 또한 소설 텍스트 속에서 사회학적 내용에 대한 전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풍자와 패러디를 통해 형태의 전복 그리고 내용의 전복을 강조하는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현대 마르크스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형식주의의 계보를 계승한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에게도 설득력과 공감대를 얻으며, 양 쪽에서 존중되며 인용 되고 있는 것이다.

3. 바흐친이 바라 본 풍자와 패러디의 기원과 기법[6]

바흐친은 스페인의 대문호인 세르반테스가 근대소설의 장을 열었다고 보았다(Bakhtin, 1981). 이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는 중세문학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대와 권력에 대한 신랄한 조소가 풍자의 기법으로 녹아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풍자를 통하여 세르반테스는 기울어져가는 중세시대의 영주권력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제도 및 문화를 조롱하며,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가져다 준 절대군주제도 및 이의 대표적 군주인 필리페 2세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심을 표현하였다. 그 당시 스페인은 필리페 2세를 정점으로 하는 절대왕정 체제하에서 스페인 역사상 최대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를 맞이한다. 세계 최강의 무적함대(Ramada Invincible)를 거느리고 대서양과 지중해를 호령하며 스페인은 당시 세계

[6] 바흐친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이미 소설적 요소를 갖춘 문학텍스트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매니키언(Manichean)풍자와 패러디를 예로 들었다(Bakhtin, 198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최대의 식민지를 개척하며,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사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기사계급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국 스페인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과 필리페 2세에 대한 커다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세르반테스는 사실 일종의 말단 세무관리로서 지나가는 가축들의 통행세를 징수하던 가축통행세 징수원이었다. 그러한 그가 어느날 라만차(La Mancha)지방의 아르가마실랴(Argamasilla)라는 고을에 와서 양들의 통행세를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마을의 영주이자 시장인 로드리고 데 빠체코(Do Rogrigo De Pacheco)는 그가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그의 마을에서 왕을 위해 가축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었던 세르반테스를 몇 달간 감옥에 가두고 수모를 준 뒤 마을에서 쫓아버린다.

마을에서 쫓겨난 세르반테스는 수모로 인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하여, 빠체코를 어떻게 조롱 할까 하다가, 그를 모델로 알론조 데 퀴아노(Alanso De Quijano)라는 중세기사도에 빠져서 살짝 돌아버린 권세가 기울어진 지방 귀족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아르가마실랴의 시장이었던 빠체코는 실제로 중세 기사이야기에 빠져 있어서 조금은 비현실적이고 미친 사람 이었다고 한다(Cervantes, 2004).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알론조 데 퀴아노라는 시대착오적 지방 귀족이 돈 키호테라는 기사명을 받기 위해 여인숙주인으로부터 기사서품을 받는 장면부터가 바로 세르반테스 풍자의 시작이다. 이름의 가운데 귀족임을 표시하는 데(De)가 붙어 있는 귀족 퀴아노가 작품 속에서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가 영주로서 착각하고 있는 시골 여인숙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건히 서품을 받는 장면은 이들과 함께 등장한 여인숙의 접대부들과 더불어 본래의 기의가 기표에서 이탈되고 새로운 기의가 접목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이러한 소설 텍스트의 내용 속에서 귀족과 여인숙 주인 그리고 접대부들 사이에서 형성된 원래 사회 권력적 내용은 전복되고 귀족은 무릎을 꿇은 하인이 되며, 그에 의해서 여인숙 주인은 성주로서, 접대부들은 귀부인 또는 공주로서 귀하게 모셔진다.

그 속에서 독자들은 세르반테스의 풍자적 기법으로 재 탄생한 조롱 받는 기득권층인 귀족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해학과 웃음의 전복적 카니발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르반테스의 풍자기법은 19세기 영국소설을 대표하는 찰스 디킨스(1812-1870)에 의해서 재현 된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주는 해학과 웃음은 『데이비드 카퍼필드 』에서 주인공 David이 식당 급사에게 당하는 장면이나 산초의 모습에서 변형된 『픽윅 클럽』에서의 Mr. Pickwick와 같은 모습으로 패러디 되었다(Bakhtin, 1981).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에서 작중인물들을 통하여 보여준 풍자가 디킨스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작품 속에서 재현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서 풍자이지만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패러디라고도 규정 될 수 있다. 즉 패러디라는 것은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풍자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Zylko, 1990). 이러한 디킨스의 패러디[7]는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와 중국의 노신(魯迅)[8]과 같은 세계 각국의 19-20세기 초반 근대 소설가들에게 전수 되었다.

패러디 작품에는 반드시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원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형과 패러디 작품 사이에는 반드시 상호텍스트성이 존재 한다(Gardiner, 1993). 그리고 그 원형이 원래 풍자적이었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원형에 대한 풍자적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패러디에서는 원형 텍스트에 존재했던 기표와 기의의 이탈적 관계가 한번 더 분리되고 이탈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와 이탈의 관계가 소설텍스트 속에서 전복적 모습을 보이며 나타난다(Kristeva, 1980).

4. 대화이론에서 바라본 소설장르: 전복적 장르로서의 소설

바흐친이 이와 같이 풍자와 패러디의 소설 텍스트 내에서의 전복적 역할에 대하여 논했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영화나 여러 다양한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이며 따라서 즉각적인 전복 효과를 보여 주는 문학장르는 존재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당시 일반대중과 여론을 조성 할 능력을 지녔던 교양을 갖춘 중상층 및 식자층들은 주로 전통적 서사시, 시극 또는 새롭게 등장한 소설 텍스트 속에서 교양적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쌓아 나갔다.

그런데 서사시와 시극[9]이 결과적으로 영웅이나 지배계층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그들을 역사의 승리자라는 전제조건 하에 쓰인 것이라면(Cunliffe, 1993) 소설은 민중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며, 세르반테스를 거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소설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서사시나 희곡은 그리스-로마시대 이후부터 이 천년 이상 존재해 오고 있었다. 그러한 오랜 세월 속에서 이러한 장르들은 권력층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시어의 상징성의

---

[7] 김택중(2003)에 의하면 디킨스는 금권적 물질만능주의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의 여러작품에 걸쳐 패러디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8] 노신의 『아Q정전』에서 우리는 돈키호테와 같은 또 다른 시대착오적인 인물인 주인공 아Q를 만날 수 있다. 돈키호테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대착오적 귀족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면, 아Q는 당대 서구열강과 일본의 무력 앞에서 자기역사의 주인공에서 밀려나 역사의 구경꾼으로 전락한 중국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9]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전부 소넷(Sonet)의 형태로 일정한 시적 형식을 갖춰 만들어 졌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희곡은 엄밀히 말해 희곡이라기 보다는 시극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 *Romeo and Juliet, King Lear*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극대화를 통한 축약이나 함축 또는 주인공에 대한 영웅적 미화작업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기득권층의 보호나 텍스트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사시나 시극이 보여주는 일정한 형식에서 탈피하여, 산문체로서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당대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계층들의 언어적 습관들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Gueorguieva-Dirkyan, 1990).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 소설은 기존의 서사와 시극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배적 장르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풍자와 패러디로 가득 찬 소설은 내용적으로도 장르간의 세력적 관계 속에서도 상당히 전복적이라고 볼 수 있다(Emerson, 1997).

III. 결론

지금까지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이론은 현대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있는 비평가들이나 사상가들이라면 성향의 좌우를 불문하고 깊은 관심과 인용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이유로서, 그의 이론은 당대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 형식주의와 마르크스 비평이론의 특징들을 모두 포함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Conway, 1983). 이것은 소설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장르 속에서 풍자와 패러디의 형태적 기법을 통해 기표와 원래 거기에 접목되어 있던 기의를 이탈시키고 새로운 기의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내용과 함께 전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것은 순수예술의 합목적성을 지향하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방법적 연구와 언어와 문학의 정치성과 사회적 역할을 텍스트의 내용 속에서 분석해 내고자 하는 마르크스 비평이론을 동시에 만족시킨다(William, 1977).

이러한 양가적(ambivalent)이며 따라서 소설텍스트 속의 언어학적이며 기호학적 형태와 내용적 분석의 접근 방법(Flaherty, 1986)은 사실상 196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제반 현대 언어학과 문학비평이론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후에 등장한 데리다의 해체주의이론 조차도 탈중심(Decentralization)적 사고방식과 더불어 기표와 기의간의 영원한 이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수의 비평가들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형식주의에 보다 치우친 수동적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언어학적, 형태적 해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러한 해체가 어떻게 텍스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 아쉽게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흐친의 이러한 대화이론이 어떻게 탈구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비평에 수용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주의, 문화이론, 신역사주의, 탈식민이론, 신 인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의(Neo-Humanism)와 같은 세부적 비평이론들과 어떤 방식으로 어우러지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밖에 분석해 내지 못했다. 특히 대화이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여성주의는 대화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다 폭 넓고 구체적으로 연구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바흐친의 대화이론은 상당히 무겁고도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대화이론이 칸트와 헤겔의 철학적 역사성과 전통을 동시에 공유하며, 더불어 고대그리스 로마시대의 비극적 코미디(Serio-comic)부터 중세 라블레(Rabelais)의 작품세계, 그리고 세르반테스를 거쳐서 근대 디킨스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며 정립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상구. (2001). 『프랑스 중위의 여자』 서사전략. *영어어문교육*, 7(2), 115-127.

김택중. (2003). 찰스 디킨스의 『우리 모두의 친구』: 쓰레기 더미에서 보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 *영어어문교육*, 9(1), 1-15.

오종우. (2004). 관계의 미학과 시학의 정치성: 러시아 형식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34. 169-182.

Bakhtin, M.M. (1990). *Art and answerability: Early philosophical essays by M.M. Bakhtin.* M. Holquist & V. Liapunov (Eds.). V. Liapunov (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Bakhtin, M.M. (1984). *Rabelais and his world.* Helene Iswolsky(Tra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Bakhtin. M.M.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M. Bakhtin.* M. Holquist (Ed.). C. Emerson & M. Holquist. (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Bakhtin, M.M. (1987).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C. Emerson(Ed. &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Bennet, T. (1979). *Formalism and Marxism.* New York: Routledge.

Bialostosky; D. (1989). "Dialogic, pragmatic, and hermeneutic conversation: Bakhtin, porty, and gadamer." *Critical studies*, 1(2). 107-119.

Cervantes, M. (2004). *Don Quixote* 1605. New York: Barns and Noble.

Clark, K. & Holquist M. (1984). *Mikhail Bakht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Conway, J. (1983). "The retreat from history: A Marxist analysis of Freud." *Studies in Soviet Thought.* 25. 101-12.

Cunliff R. (1993). "Charmed snakes and little Oedipuses: The architectonics of carnival and drama in Bakhtin, Atraud, and Brecht." *Bakhtin: carnival and other subject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D. Shepherd. (Ed.). Amsterdam: CIP. 3(2). 48-69.

Eagleton, T. (1982). "Wittgenstein's friends," *NLR* 135 (1982), pp. 74~81.

Easthope, A. (1993). "The Bakhtin school and Raymond Williams." *Critical Studies,* 3(2), 115-124.

Easthope, A. (1993). "The Bakhtin school and Raymond Williams: The subject and the signifier." *Bakhtin: carnival and other subjects.* D. Shepherd. (Ed.). Amsterdam: CIP. 3(2). 115-124.

Emerson, C. (1997). *The First hundred years of Mikhail Bakht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Erlich, V. (1981). *Russian formalism – history and doctr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Flaherty, P. (1986). "Reading carnival: Towards a semiotics of history." *Clio.* 15(4). 411-28.

Frank, J. (1990). *Through the Russian Prism: Essays on literature and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Gardiner, M. (1993). "Bakhtin's carnival: Utopia as critique." *Bakhtin: carnival and other subjects.* D. Shepherd. (Ed.). Amsterdam: CIP. 3(2). 20-47.

Gueorguieva-Dikranyan, N. (1990). "Historicity and the historical novel in Bakhtin's work." *Mikhail Bakhtin and the epistemology of discourse.* C. Thomson(Ed.). 1(2). 29-46.

Hirschkop, K. (1990). "On value and responsibility." *Critical studies.* 1(1). 13-27.

Holquist, M. (1983).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The Quarterly newsletter of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5-1(Jan. 1983), 2-9

Holquist, M. (1989). "Bakhtin and the body." *Critical studies.* 1(2) 19-42.

Holquist, M. (1990). *Dialogism: Bakhtin and his world.* New York: Routledge.

Ivanov, V. (1993). "The dominant of Bakhtin's philosophy: Dialogue and carnival. *Bakhtin: carnival and other subjects.* D. Shepherd. (Ed.). Amsterdam: CIP. 3(2). 1-12.

Kristeva, J. (1980). "Word, dialogue, and novel."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L. Roudiez(Ed.). T. Gora(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64-91.

Newyemer, F. (1988).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Thomson, T. (1990). "Introduction: Mikhail Bakhtin and shifting paradigms." *Critical Studies.* 1(1). 1-12.

Todorov, T. (1981). *Introduction to poetics(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Willi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of Oxford. 1977.

Zima, P. (1981). Text and context: The socio-linguistic nexus. P. V. Zima (Ed.), *Ideology*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d the text . Amsterdam: John Benjamins.

Zylko, B. (1990). "The author-hero relation in Bakhtin's dialogical poetics." *Mikhail Bakhtin and the epistemology of discourse.* C. Thomson(Ed.). 1(2). 65-76.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Higher

이노신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우편번호: 330-713
Tel: (041) 560-8183 / C.P.: 010-6485-5998
Fax: (041) 560-8183
Email: nohshin@paran.com

Received in October 14, 2010
Reviewed in November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15, 20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